

안철수 “오로지 일하는 국회만 생각”

국민의당 최근 상승세 주춤...창당 100일 재도약 다짐 사무총장 김영환·전략홍보본부장 문병호 등 당직개편

국민의당이 11일로 창당 100일을 맞았다. 국민의당은 지난 2월 2일 중앙당 창당 두 달여 만에 치른 4·13 총선에서 전체 300석 가운데 38석을 차지, 20년 만에 제3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새 역사’를 쓰며 ‘녹색 돌풍’을 일으켰다. 호남 28개 지역구 가운데 23곳에서 후보를 당선시켜 사실상 호남을 석권한 것은 물론 서울에서 안 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당선됐다. 특히, 정당득표율에서 더민주를 앞서며 2위를 기록, 전국정당와는 물론 집권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또 총선 이후에는 안철수-전정배 공동 대표 체제의 유임을 확정하고 박지원 원내

대표를 추대하는 등 지도부 재편을 마무리,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날 기념행사 없이 조용한 가운데 100일을 맞았다. 오히려 당직개편 등으로 당의 면모를 일신하며 쇄신과 변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 당 지지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총선 직후 쏟아졌던 여론의 관심도 떨어지는 등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립정부론이나 국회의장직 선출을 둘러싼 논란 등 각종 설화가 이어지면서 “총선 승리에 도취했다”는 등의 역풍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의 지지율도 더민주

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당 안팎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책역량과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으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제·보궐선거는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느냐, ‘호남 자민련’에 머무느냐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조직 정비 및 정책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창당 100일을 맞아 당직개편으로 마무리 지으며 쇄신과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신인 사무총장에 김영환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에는 부좌현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는 문병호 의원, 국민소통본부장에

는 최원식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 대변인에는 손금주 당선인이 임명됐으며 대변인에는 김경록·장진영 대변인이 유임되고 고연호 전 은평구을 지역위원장이 추가됐다. 임내현 법률위원장과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은 유임됐다. 국민의당 최대주주이자 ‘간판’인 안 대표로서는 당의 성패 여부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명운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 대표가 대권에 대한 언급 대신 “오로지 일하는 국회만 생각중”이라고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도 당과 자신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원내 3당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 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관용 “다선 의원에 순종 말라”

국회사무처, 여야 초선의원 연찬회

국회사무처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었다. 그동안 각 당 차원에서 초선 당선인을 위한 연찬회가 열렸지만, 여야를 아울러 초선 당선인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은 132명이다. 이날 연찬회에선 이들을 위해 ‘선배’ 정치인들의 당부와 국회사무처의 각종 안내가 이어졌다. 특히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대표 연사로 나서 조언을 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2~2004년 16대 국회 후반기 때, 김 전 의장은 2004~2006년 17대 국회 전반기 때에 국회의장을 각각 지냈다. 먼저 단상에 오른 박 전 의장은 6선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정리했다. 박 전 의장은 “4·13총선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언론이 지적하는데 나

도 동의한다. 정치권에 대한 대단한 경계이고 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면서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선 당선인으로서의 초심과 소신을 지킬 것을 신신당부했다. 박 전 의장은 “오랜 구슬에 젖어 있는 다선 의원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며 “초선의원은 비교적 다선의원 얘기에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다선 의원의 계급이 아니다. 똑같은 국민의 대표이니 합심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이날 예정에는 없었지만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잠시 마이크를 잡고 후배 당선인들에게 “어떤 법안을 내거나 행동을 할 때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곳에 묻지 말고 자기 양심에 물어보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참석대상 132명 중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휴가 마친 김종인 ‘경제 정당’ 플랜 가동

더민주 당직개편 변재일 정책위의장 선임 경제비상대책기구 구성 박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1일, 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경제정당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첫 일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과 긴밀히 호흡을 맞출 정책위의장에 4선 총정권 인사인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휴식기간 동안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 자신에게 남은 4개월여간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비롯해 자신의 향후 행보까지 마음의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휴가 복귀 후 일련의 움직임은 김 대표가 당을 경제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를 찾은 린더푸 대안·한 의원선선협회장(왼쪽 두번째)과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복귀해 처음으로 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거의 한계에 왔다”며 “마치 규제 철폐만이 경제활성화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는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며 “부실기업에 자금을 쥐 생명을 연장하는 식의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광은 대변인은 “김 대표가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정책위 수석부장에 재선(20대 국회 기준)의 한정에 의원, 부의장에 최은열·김경우·표창원·김태섭·당선인,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총 6인의 부의장단을 인선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의 정책브레인인 최 당선인은 경제, 김경우 당선인은 재정, 표창원 당선인은 국민안전, 김태섭 당선인은 법조, 김중

대 당선인은 건보제체 개편 등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대표는 대변인실단도 개편, 박광은 대변인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여성 몫으로 당직자 출신의 송옥주(비례대표) 당선인을 임명했다. 또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 위원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 간사에 이연주 의원을 임명하는 등 조강특위 구성도 완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비대위원장 정진석 겸임

혁신위원장 외부 인사 투입...김황식 전총리 가장 선호

새누리당은 11일 정진석 신임 원내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해 통상적 당무와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하는 한편, 당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차기 당 지도 체제의 형태, 당권·대권 분리 문제, 정치 개혁안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전대 전까지 완성하도록 했다. 원내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들이 이날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비대위 출범을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이를 번복, 사실상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신 비안 여론을 의식, 당내 혁

신위를 설치했다. 진박(진박근혜)계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대신, 당 쇄신방안을 논의하는 혁신위를 별도로 설치해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혁신위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가 122명 당선인 전원에게 설문을 돌려 혁신위원장 추천을 받은 결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12~13일 광주서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 집결, 1박2일 일정으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또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인 오는 18일 기념행사에도 전체 당선인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 이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광주에 출진결한다. 더민주 소속 당선인들은 이날 낮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는 것을 일정을 시작한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워크숍에 참석, 환영사를 할 예정이며, ‘광주시민에게 듣는다’는 제목의 현장 민심 청취, 우상호 원내대표의 ‘20대 국

회 구성과 운영 전략’ 발표, 수권경제정당 실현을 위한 토론,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당선인들은 이날 13일에는 조찬을 함께 하며 단합을 다진 뒤 해단식을 하고, 상경하는 길에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번 워크숍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더민주 오는 18일에도 가급적 당선인 전원이 광주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5·18 묘역도 공동참배할 계획이다. 17일 열리는 전야제에도 지도부가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임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주)다산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투자 컨설팅, 관리 상담, 상가 토지전문

아파트매도 - 북구 양산동 새한아파트

- 79㎡ 2층 남향 급매 8,950만원
- 운암동 건물 매매: 제1종 근린지역 대지 165㎡ 보종금 1억2천, 월세 290만원, 매매 7억2천

- 토지매도: 광산구 선운지구 5,400㎡ 매매가: 54억원, 자연녹지지역, 8차선도로점, 미관지구

- 광주시내지역 6억, 10억대: 수익률 좋은 상가건물 매수

- 정읍 소성면 요양시설 매매: 4.6억 대지 800평, 건평 114평 시비권없음, 주변저수지 조망권 양호

채용공고

부동산,경매 배우면서 일할실분
NPL배우면서 일할실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주)다산부동산 Tel. 062)682-2288
365shops@naver.com H.P 010-5180-1945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호로 50번길 55번지 KT몽암빌딩1층(몽암저수지맛있는편)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학 문외한이면 자세한 안내를 후원하여 드립니다.